

카메라·AI기판 판매 호조... LG이노텍, 2분기 최대 매출

영업익 2458억 전년비 2057% 증가
상반기 매출 사상 첫 10조원 돌파
광학솔루션 4조5179억 48% 성장
AI 서버용 고부가 기판 공급 확대
베트남 생산기지 증설 투자 본격화

LG이노텍이 계절적 비수기에도 모바일 카메라 모듈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사업 호조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거뒀다. 회사는 베트남 반도체 기판 생산기지 증설과 패키지 솔루션 사업 확대를 통해 AI 인프라 투자 수요를 선점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사업도 미래 성장 축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LG이노텍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4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41% 늘어난 5조5272억원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LG이노텍 마곡본사.

/LG이노텍

누적 매출은 11조621억원으로 사상 처음 상반기 매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모바일 용 고부가 카메라 모듈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진 가운데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 공급 확대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LG이노텍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모바일 카메라 모듈 수요가 지속됐고 고주파수 시스템인패키지(RF-SiP), 플립칩

칩스케일패키지(FC-CSP),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고부가반도체 기판 공급 호조도 이어졌다"며 "차량카메라와 통신·조명 모듈 등 모빌리티 부품 매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부별로는 광학솔루션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학솔루션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조5179억원을 기록했다. 비수기에도 모바일용

고부가 카메라 모듈 판매가 견조했고 주요 고객사 신제품 공급과 차량 카메라 매출 확대가 실적을 이끌었다.

패키지솔루션사업은 AI 반도체 투자 확대의 수혜가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4984억원을 기록했다. RF-SiP와 FC-CSP 공급 증가에 이어 글로벌 고객사향 FC-BGA 공급도 확대되면서 고부가 기판 중심의 사업 경쟁력이 강화됐다.

모빌리티솔루션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109억원을 기록했다. 차량 조명과 통신 모듈을 비롯한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었고 차량용 카메라 등 전 제품군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LG이노텍은 하반기에도 패키지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반도체 기판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

가 반도체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면서 AI 서버용 FC-BGA와 RF-SiP 등 고부가 기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능력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우위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LG이노텍은 이에 맞춰 기판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최근 패키지 솔루션 사업을 2031년 매출 3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AI 서버용 FC-BGA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베트남 생산 기지와 구미 사업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서버용 FC-BGA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초대면적 FC-BGA와 유리기판 등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며 AI 반도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주)두산, 계열사·전자BG 성장 2분기 영업익 38% 뛰었다

에너지빌리티·배터리 수익성 개선 견인
자체 사업 분기 기준 최대 실적 달성

(주)두산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배터리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전자BG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

(주)두산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5861억원, 영업이익 488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 영업이익은 37.8% 증가했다.

주요 계열사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분기 매출 4조7248억원, 영업이익 31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15.9% 늘어난 규모다. 상반기에는 국내외 가스터빈과 중동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7조1000억원을 수주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하반기 체코 원전 시공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 계약 등을 추진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조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두산배터리의 2분기 매출은 2조44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매출 확대를 이끌었으며 미국 관세 환급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42.9% 늘어난 2917억원을 기록했다.

(주)두산 자체 사업도 전자BG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체 사업 부문의 매출은 7652억원, 영업이익은 2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두산은 하반기에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시장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장 수요와 제품 구성 개선을 반영해 자체 사업 부문의 올해 매출은 약 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셀트리온, 신제품 성장에 영업익 86% 증가

신제품 매출 8249억·비중 65%
영업이익률 32.4%까지 상승
하반기 신제품 비중 70% 목표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시장에 안착한 신약 '집펄트라' 등 고수익 신제품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썼다.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조3937억원, 영업이익 4518억원을 확정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86% 증가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다. 지난 3일 발표했던 잠정 실적과 비교해도 매출액은 937억원, 영업이익은 218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7.2%p 상승한 32.4%다. 이러한 호실적은 신규 제품군이 견인했

다. 기존 주력 제품인 램시마, 트루시마, 하쥬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한 8249억원이다. 전체 바이오 제품 매출에서 신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5% 수준으로 커졌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신약으로 발매하고 있는 '집펄트라'다. 올해 2분기 매출은 467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500억원대에 진입한 후 올해 들어 1분기 528억원, 2분기 467억원 등을 기록해 왔다. 상반기 누적 매출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36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995억원으로 176% 커졌다.

또 출시 이후 월 평균 처방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성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자산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MTS

개비마블
KB마블

금리·매매
비용을 줄여
달라질

M
KB증권

M-able

M
KB증권

투자실력부터 자산성장까지
시작은, KB마블로부터!

매일 아침 1분 정보
오늘의 콕

전문가의 투자 전략
PRIMECLUB

한 눈에 보는 ETF 흐름
ETF 인사이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277호(2026.05.14~2027.05.13)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 주식거래 시 수수료 (비대면계좌)는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